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군산시, 오늘부터 지급... 콜센터 운영·전담 TF팀 가동 등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군산시가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1차 지급 기준은 일반 시민 18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다. 이는 군산시가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면서 1인당 3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신청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경로는 △군산사랑상품권 앱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문란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읍면동 현장 접수를 통한 선불카드 지

급도 병행한다.

특히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 전담 콜센터(☎063-454-4370)도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별도 콜센터(☎063-280-4950~4955)를 설치해 광역 차원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다.

시는 신청 절차와 사용자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응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팀도 가동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추진반(지급결정팀, 운영팀, 인력관리팀) △행정지원반 △현장대응반 등 3개 반

이 8개 부서와 27개 읍면동 협업체계를 갖췄으며, 총 11명의 TF팀을 구성해 지급부터 사용자까지 빈틈없는 지급 체계도 마련했다.

김영준 군산시장은 "소비쿠폰이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청부터 수령, 사용자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차분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또한 소비쿠폰을 사칭한 문자나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지자체·카드사에서는 어떠한 링크(URL)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식 경로 외 접속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난 19일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0주년 기념행사가 센터 내 더함홀에서 열렸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익산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0주년

지역 육아 플랫폼 성장 토대 아동 행복 도시로 더 힘차게

10주년 기념행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선포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참여 기회 확대

익산시가 아이의 첫 걸음을 지켜온 10년을 바탕으로 아동이 주인공이 되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시는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나 성과를 돌아보고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2015년 문을 연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지난 10년간 약 70만 명의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중심 육아 플랫폼으로 성장해왔다.

센터는 장난감 대여실 운영,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부모 교육과 상담,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주민들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3년 모현동에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해 권역별 서비스 제공 기반도 확대했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는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더함홀에서 열리며,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 회 의장, (주)하림 관계자, 보육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는 10년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주)하림의 장난감 기탁식이

이어서, 현장에는 영유아와 가족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2부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선포식'이 진행됐다. 선포식에서는 정수진 익산시 아동의회의장이 현판을, 황시완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이 인증서를 익산시에 전달했다.

익산은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참여·발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2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앞으로도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개방형 부모교육, 아동 발달 맞춤형 서비스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도시로서, 아동이 정책의 '수혜자'에서 나아가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hildcare.ik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영동동 063-859-4765, 모현동 063-859-460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익산 다이로움으로 받으세요

오늘부터 '다이로움' 앱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 다음 날 지급 시 운영 로컬푸드직매장 사용가능... 일부 가맹점 10% 추가 환급

익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지역화폐 '다이로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기존 다이로움 앱 사용자는 오는 21일부터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앱을 통해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신청·충전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이로움과 합산 결제할 수 있어, 소액 잔액까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이로움으로 수령한 소비쿠폰은 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 등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책발행가맹점(262개소)을 제외한 1만 4,400여개의 다이

로움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특효약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 다이로움 혜택을 추가로 받는 '정책지원가맹점'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다이로움 결제금액의 10%를 지원해주는 정책지원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몰, 착한가격업소, 지역서점, 치킨로드 등 79개소가 해당된다.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업별로 월 2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는다.

실물 카드 없이도 사업장에 비치된 빠른 응답(QR) 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빠른 응답(QR) 결제 시 가맹점 수

수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 수 있다.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아양점·모현점)의 경우, 다이로움으로 수령한 소비쿠폰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수단에 따라 선불·신용·체크 카드 사용이 제한된 일부 업종에서도 다이로움 소비쿠폰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된다. 가맹점주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스티커를 수령하면 된다.

다이로움으로 신청한 소비쿠폰은 다음날 충전되며,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 쿠폰의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가급적 빠른 사용이 권장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국 장애인 펜싱선수들, 익산에서 '열전'

2025 전국장애인펜싱 리그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 선수·임원 등 100여명 참여 9월 세계선수권 진행 의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2025 전국장애인펜싱 리그대회'가 진행됐다.

익산에서 전국장애인펜싱 리그대회가 펼쳐지며, 오는 9월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

익산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2025 전국장애인펜싱 리그대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펜싱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 임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사브르와 플뢰레 종목에서 선수들의 수준 높은 기량이 빛을 발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리그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없이 운영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는 오는 9월 익산에서 열릴 '2025 장애인펜싱 세계선수권대회'

의 성공적 개최와 장애인 펜싱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2025 장애인펜싱 세계선수권대회'는 33개국 6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로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다.

특히 패럴림픽 다음으로 중요한 대회로 평가되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안패러게임' 출전권과 세계 랭킹

결정에 직결되는 핵심 무대다. 이에 세계 우수 선수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국장애인펜싱 리그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세계선수권대회의 완성도 높은 준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펜싱 저변 확대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익산시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골든타임 확보 '큰 기여'

군산시가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 긴급환자의 병원 이송 시간을 평균 4분대로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이 긴급환자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는 2024년 1월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군산소방서 소속 지휘차 1대, 구급차 14대, 구조공작차 1대 등 총 16대의 긴급차량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러한 성과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군산소방서의 시스템 효율

적인 활용, 군산경찰서의 유기적 협조 등으로 이뤄진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역시 군산시가 시스템 도입 이후 환자발생현장에서 병원 내 이송 시간 검토 결과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이 13분 58초에서 평균 4분 37초로 평균 33%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립합창단, 제120회 정기연주회

9월 6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개최

군산시립합창단이 오는 9월 6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20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시작의 서곡'을 화려하게 무대에 올린다.

상임지휘자가 부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현 포항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예술적 열정과 뛰어난 기량을 보유한 최원익 객원지휘자가 함께한다. 최원익 객원지휘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합창 지휘 예술전문사와 프랑크푸르트 안 마인 공연예술대학교에서 지휘과를 석사 졸업한 촉망받는 예술가이다. 최 지휘자는 이번 공연에서 합창단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군산 예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연의 주제는 '바람, 세익스피어, 소녀를 노래하다'로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남규 작곡의 '바람의 말'은 상실 속에서 기억과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깊은 성찰을 유도하고, 천성미 편곡의 '3 Shakespeare Songs'는 세익스피어의 시대를 초월한 감성을 합창으로 재해석한다.

여기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가 'Deep River'와 'Every Time I Feel the



Spirit'가 고난을 이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는 희망과 인내를 노래한다.

이외에도 바나나 작곡의 '오래된 가을'과 '바다가 그리워'는 성찰과 위로, 이범준 작곡의 '기쁨에게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전한다.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 좌석 5,000원(할인 2,500원)이다. 예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기타 공연 관련 문의는 군산시립합창단 사무국(☎063-454-5558)으로 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5년 상반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군산시가 지난 18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공약이행평가단이날 회의는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과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추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15개 사업을 중심으로 원인과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산시는 현재 5대 분야 총 50건의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완료 44건, 정상 추진 14건, 일부 추진 3건으로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예산 확보, 행정 절차 지연, 외부 여건 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단 회의를 계기로 연말까지 공약 이행을 85% 달성을 목표로 사업별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마감

군산시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군산사랑상품권 캐시백 예산 100억원이 지난 18일부로 전액 소진됨에 따라 캐시백 지급을 조기 마감한다.

일회 채움 도입된 인센티브 제도는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의 10%를 월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적립해 주는 캐시백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이용률로 사업 시작 약 6개월 만에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다.

시는 이번 제도가 군산사랑상품권의 실사용률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산시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캐시백 정책은 지역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었으며, 이에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사랑상품권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방학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9곳 급식 지원

익산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복지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여름방학 기간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급식비 지원은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과 아동 결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이용자 부담을 통해 급식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 여름방학에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활용해 급식비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모든 센터 이용 아동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시는 현재 9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해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훈 기자